

영화의 영향력과 현대 기독교적 적용

The Influence of Films and Its Application to Modern Christianity

권혁진, 봉원영
삼육대학교 신학과

Hyuk Jin Kwon(supken@naver.com), Won Young Bong(bong10@syu.ac.kr)

요약

본 논문은 영화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영향력을 고찰하고, 영화(문화)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을 종합하여 현대 기독교에서의 적용 방안을 제안한다. 영화는 사회 전반부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현대인들은 과거 문자 시대에 문자 문화에 익숙해지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던 것처럼 영상 시대에 적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영화를 대하는 기독교적 입장은 다소 소극적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기독교적 대안에 대한 연구 논문도 비교적 적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Niebuhr의 문화에 대한 모형론과 그에 대한 신국원의 문화적 풀이, 그리고 이를 발전시켜 영화에 적용시킨 Johnston의 영화에 관한 태도와 Keller의 문화 참여 모델을 종합하여 분석하고 영화에 대한 “비평적 시야의 확장”, “사고의 정립”, “사고의 확장”의 단계별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오늘날 대중사회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문화에 대하여 기독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의 가능성을 찾아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더욱 많이 나오기를 제안하였다.

■ 중심어 : | 영화 | 문화 | 영향력 | 기독교적 적용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influence of films. The study also suggests several applications for Christian society through integrating some Christian viewpoints of films in culture. Films affect most of all areas of the society and modern people tried to get used to new culture of moving images, as we have done with the-character-culture, in the past. Many Christians, however, are shy about films and they have a few Christian applications to them. In this paper, researchers integrate the model of Niebuhr, Shin's cultural viewpoint of Niebuhr's understanding, and Johnston and Keller's model about films developed from Niebuhr. Researchers suggest a step-by-step proposal containing 'Extension of critical perspective', 'Establishment of thinking', and 'Expansion of thinking' as Christian effort to communicate films effectively. In addition, more studies are suggested Christianity will find out more possibilities of dialogue and more positive alternative to communicate with diverse cultures that are naturally experienced in today's popular society.

■ keyword : | Films | Culture | Influence | Christian Application |

I. 서론

구전 문화가 기록 문화로, 그리고 다시 기록 문화가 인쇄문화로 전환되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인쇄된 글자가 지배하는 문화에서 움직이는 이미지가 지배하는 문화”로 옮겨가고 있다[1]. 이른 바 영상의 시대가 온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형태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매체를 손꼽으려면 TV와 영화일 것인데 그중에서도 영화의 영향력은 일반적 상상을 뛰어넘는다고 할 수 있다.

2011년에 있었던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별법 개정안’(일명: ‘도가니법’)의 통과를 현대인의 삶에서 영화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게 하는 실례가 되었다. 원래 소설가 공지영의 작품이었던 <도가니>가 2011년에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한국사회의 여론을 움직이고 정치권까지 ‘도가니법’을 발의하게 되었던 것이다[2].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의 전말을 세상에 처음으로 알렸던 것은 영화 <도가니>가 아니었다. 이미 그보다 오래 전인 2005년 11월 1일 MBC TV PD수첩에서 방영된 ‘은폐된 진실, 특수학교 성폭력 사건’편을 통해 도가니 사건이 다루어 졌었다. 뿐만 아니라 이후, 2009년에 발표된 공지영의 소설 「도가니」는 곧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당시 대중과 정부, 관련 기관들에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3].

그러면 6년이나 지난 2011년이 되어서야 이 사건에 대해 대중들이 공분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으며 정부는 왜 이 사건을 다시 수사했던 것일까? 여기에서 우리는 영화의 힘을 볼 수 있다. 영화 <도가니>는 공포 영화 장르의 구성요소와 클로즈업의 활용으로 관객의 몰입과 동화를 쉽게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로 인해 관객의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되었고 관객은 단순히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잠재되어있던 기억과 비판을 행위로 이어진 실천의 주체가 되었던 것이다[4].

Hauser(2006)는 20세기는 영화의 시대라고 단언했으며, Lenin은 혁명의 가장 유력한 선전 운동수단으로 모든 예술 가운데 영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5].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영화는 그 어떤 문화보다도 사

상성을 나르는 매우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영화는 토론 프로그램과 같이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짜인 한쪽의 사상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6].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 없이 영화를 보는 것은 돈을 가지고 강도 앞에서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5].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영화에 대한 이렇다 할 비평적 의식 없이 영화를 대면한다. 심지어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조차 이러한 영화의 영향력 아래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영화에서 나타난 윤리적인 태도와 성경이 나타내는 윤리적인 태도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화에서 제공하는 어떠한 사상들을 비평의 과정 없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움직이는 이미지의 지배를 받고 있다. Postman(2009)은 현 시대에서 보면 믿는다(Seeing is Believing)는 명제가 “늘 독보적인 지위를 누리왔다”고 말한다[7]. 그렇다면 움직이는 이미지의 대표적인 매체라 할 수 있는 영화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지난 교회역사를 살펴 볼 때, 20세기의 서구교회의 기본적인 입장은 가능한 문화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었다. 당시 개인의 영적 성장에 치중하는 경건주의나 청교도주의의 영향으로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바른 신앙에 방해가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난 15년 사이에 교회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서구사회가 비교적 갑작스럽게 탈기독교 사회로 변하고 교회가 의도하지 않게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삶의 주변부로 밀려나면서 교회는 자연스럽게 문화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할 필요성과 그 문화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8]. 이러한 상황에서 Niebuhr(1975), Johnston(2006), Keller(2012) 같은 학자들이 차례로 문화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을 정리했는데 이 과정에서 교회가 문화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9-11]. 그러나 현대 기독교가 영화와 같은 문화적 매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용하여 발전시켜서 교회의 소명을 실현할 수 있는지

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12][13]. 따라서 본 연구는 오늘날 대중 영상매체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를 중심으로 현대 기독교와의 대화의 가능성과 적용점을 발전시켜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영화에 관한 연구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져왔다. 연구자에 따라 좁게는 특정 영화의 내용과 그것의 함의, 때로는 영화의 촬영기법, 배급사의 행태 분석, 영화포스터 분석 등의 실용적인 측면을 다룬 연구가 있으며[4][14-18], 넓게는 영화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 왔다[19-24]. 또한 이를 통하여 영상 시대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 논문도 다수 존재한다[18][25-27].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독 기독교적인 입장과 그 대안에 대하여 제시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현실에서, 영화와 문화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과 아울러 본 연구에서 주안점을 두고 진행하고자 하는 현대 기독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대안들은 이전의 연구와의 차별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본 연구가 단순히 영화 혹은 영상콘텐츠 중심의 논문이 아니라 합리적인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영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화할 것인지를 다루면서 실천적 적용을 강조하는 실천신학적 논문임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II. 다각적으로 살펴 본 영화의 영향력

1.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 영화의 영향력

1994년 대통령 연례보고에서 의례적이지 않게 할리우드 영화 <쥬라기 공원>이 언급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영화의 경제적 영향력이 얼마나 큰 지를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28]. 이러한 영화의 대중적 파급력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그동안 국가권력의 간섭과 통제를 받아오던 영화산업은 개혁과 규제완화, 지원정책의 바람이 일게 되었고 문화산업정책이 본격적으로 시

행되기에 이르렀다[29]. 실제로 1994년을 전후로 당시 여론 시장을 주도하던 신문에서 문화산업 관련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이는 관급 기사의 비중에도 불구하고 문화산업이 이제 공중의 의제로 확고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28].

[표 1]은 한국언론재단(kinds.or.kr)을 통하여 중앙지(경향신문, 국민일보, 한겨레 등), 경제지(매일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기타), 그리고 전국의 지역지를 모두 선택하여 1993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사제목과 본문에 “문화산업”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기사의 빈도수를 나타낸 것이다. 1993년에 관련 기사의 수가 60개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 다음해인 1994년에는 183개로 약 세배 이상 폭등하더니 2016년 현재에는 105배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문화산업이 단순한 오락산업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벗어나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의 하나로 경제적인 측면을 인정받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배기형(2012)은 영화산업가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이기에 반드시 육성해야 하는 전략사업 중의 하나라고 주장한다. 영화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2.324로 제1차 금속제품, 금속제품, 일반기계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영화제작 및 배급부문과 영화상영 산업의 최종 수요에 대해 1억 원을 투입했을 때 2.324억 원의 직·간접적 생산유발효과가 국민경제에 파급된다. 또한 영화산업은 감응도 계수는 0.825이고, 영화상영부문의 경우 0.501로 타산업의 최종수요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서 영향력계수가 1.163으로 1보다 커 비교적 다른 사업에 견인하는 정도가 높으며 부가가치유발계수도 0.884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영화산업이 국가 전략산업의 하나로써 산업 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19].

영화의 이러한 부가가치의 창출과 더불어 지식집약적인 특성 때문에 영화산업은 국가경제를 선도할 고부가가치 산업의 하나로 각광받기 시작했고 세계 각국은 주도권 확보를 위해 지원정책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

표 1. 1993-2016년(11월) “문화산업” 관련 기사 빈도

연도	93	94	95	96	97	98	99	20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2016
건수	60	183	174	215	262	883	941	1062	1520	1576	1918	2406	2485	2156	2186	4100	3893	4176	4156	4935	5881	5971	5639	6325

다. 프랑스는 정책적으로 국가주도로써 안정적인 영화 산업을 유지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에서는 반지의 제왕 시리즈를 통해 관광산업이 활성화 되었다[30]. 특히 폭발적인 성장세를 지속하면서도 아직까지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국 역시 국가적으로 영화산업 육성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중국정부는 문화·여가 산업의 성장, 소득 증가에 따른 대중문화 소비 확대를 바라보며 내수활성화 추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31].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와 맞물려 우리나라의 영화산업에서도 PPL(제품배치) 광고, 영화 촬영지를 이용한 관광지 개발, 문화콘텐츠 개발, 영화 제작 기술협약, 한류(Korean Wave)를 이용한 부가가치를 높이는 등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18][25]. 그러므로 영화는 단순한 오락의 형태 또는 예술, 더 나아가 문화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문화의 상업화에 가장 호의적인 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20].

2. 사회적 측면에서 본 영화의 영향력

영화는 현실을 담아내는 그릇이자 사회적·정치적인 변화를 이끌어어나가는 도구이기도 하다. 그래서 영화가 긍정적으로는 사회개선과 변혁의 망치역할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국가권력의 선전선동 도구로 전락하기도 한다[21]. 미국과 이라크의 걸프전이 끝나고 일 년 후에 출시된 애니메이션 영화 <알라딘>에서 아랍인들은 커다란 코와 콧수염, 그리고 무서운 눈초리를 한 시끄러운 야만인들로 표현된 반면, 주인공인 알라딘과 제스민은 표준 미국 영어를 구사하고 아랍인답지 않은 용모를 소유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21]. 그러면 관객들은 무의식중에 아랍인들을 시끄럽고 야만적인 민족이며 사회 공공의 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또한 지난 2015년 6월, 디즈니 뮤지컬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주인공 엘사를 따라한 세 살배기 호주 원주민 소녀 사마라(Samara)는 엘사 드레스를 입고 쇼 핑센터에 갔다가 한 성인 여성으로부터 폭언을 듣는 사건이 발생했다.

“엘사는 흑인이 아닌데 왜 네가 그 옷을 입고 있니?”
(I don't know why you're dressed up for because Queen Elsa isn't black.)

그 여성과 함께 서있던 딸로 보이는 꼬마 소녀 역시 “넌 흑인이야, 못생겼어!”라고 말했고 이에 충격을 받은 사마라는 평소에 즐겨 가던 학원에도 가지 않으려 했다. 이러한 사실을 그의 엄마 무어(Rachel Muir)가 페이스북(Facebook)에 공개하면서 호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다[32].

이처럼 영화는 관객이 현실을 보는 시각을 갖도록 도울 뿐 아니라 관객에게 삶에 대한 시각을 제공한다[1]. 현실 속에서 <겨울왕국>의 주인공은 흑인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관객들에게 제공하고 관객은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진리라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Brecht(1987)가 말한 “관객의 성향과 생각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주지 않는 연극이나 극장 공연은 없다.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예술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실로 의미심장하다[33].

또한 영화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관객 천 만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병기(2016)는 1,000만이라는 숫자는 실제로 대선 당선 확정에 근사한 수치였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원형과 복제가 새로운 원형으로 자리매김하거나 새로운 원형을 창출하는 현대 시대, 즉 시뮬라시옹(simulation)의 세계에서 영화가 보여주는 사건은 단순히 사건의 재현 혹은 복제가 아니라 하나의 원형적 사건이 된다고 주장한다[34]. Bazin(1967)은 영화가 단순히 실제의 재현 정도가 아니라 실제의 연장이라는 시각으로 영화의 이미지는 실제 그 자체를 알기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35]. 특별히 Deleuze(1969)는 영화 이미지 그 자체로는 어떤 다른 이미지를 가리키는 이미지가 아니라 “단지 현실의 대상으로 이루어진 물질이자 끊임없이 운동 중인 물질”로 보았다[36][37]. 그에게 있어서 영화는 “하나의 작은 물질적 우주와 같으며, 영화 이미지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절대적 운동 이미지의 그것과 같은 것”이었다[38]. 이것은 영화가 현실에 개입하고 다시 현실이 영화를 규정한다는 상호 구성적 과정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치적인 권력 주체가 정치적 감성들(권위, 근엄성, 신성함, 카리스마 등)을 대중으로부터 이끌어내기 위해 영화와 같은 예술을 사용하는 것이 이런 정치적인 목적을 실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있다[34].

또한 인쇄문화가 지배하던 시대이자 영국 제국주의의 정점이었던 1894년에 쓰인 루디아드 키플링(Rudyard Kipling)의 소설 <정글북>이 영국의 인도 지배를 합리화하였듯이, 영상문화의 시대로 옮겨가던 시점에 출시된 애니메이션 영화 <정글북>(1967년)은 주인공들에게 미국적 성격을 가미함으로써 미국의 베트남 침공을 합리화했다[21]. 이처럼 영화는 참으로 자신들의 주장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와 공감을 사기에 탁월한 매체이다. 그러므로 관객들을 분노하게 하고 때로는 위로하기도 하며 어떠한 구체적 행동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까지 하는 사회적·정치적으로 이용하기에 가장 매력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다.

3. 문화에 미친 영화의 영향력

Williams(1976)는 문화는 영어에서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단어 두셋 중의 하나라고 했다[39]. 사전적 의미로 문화는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 이처럼 문화는 인간의 외형적인 삶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삶에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때로는 모호하기까지 하다.

3.1 영화가 인간의 외형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를 통하여 간접 경험을 익혀두었다가 그와 유사한 상황이 오면 익혀두었던 문제의 해결방식으로 떠올려 그대로 행동하는 특징을 보이는 청소년들의 언어에 대한 연구는 영화가 인간의 외형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연구 자료중 하나가 된다.

김정선과 윤영민(2011)은 청소년들의 욕설·비속어의 증가의 요인과 2000년대 초반부터 조폭 모티브가 영화의 흥행 코드로 자리 잡은 현상이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다[23]. 2001년에 발표된 영화 <친구>를

필두로, <조폭 마누라>, <복수는 나의 것>, <나쁜 남자>, <공공의 적>, <두사부일체>, <신라의 달밤> 등의 폭력적인 영화가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오며 동시에 이들 대부분의 영화들이 흥행에 크게 성공하면서 우리사회에 조폭 신드롬을 낳았고 사회적인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40]. 심각한 점은 폭력적 장르의 영화가 유행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상스럽고 거친 언어를 청소년들이 그대로 따라함으로 다른 사람을 비하하거나, 조롱, 무시하는 것을 웃음 유발의 기제로 사용하는 등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다는 것이다[23].

2012년에는 미국 콜로라도주(州)의 한 극장에서 영화 광팬이 벌인 총기난사 사건으로 인해 영화 속 폭력의 영향력에 관한 논의를 다시금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범인은 영화의 총격장면이 상영되는 시점에 방독면을 쓴 채 상영관 내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뒤 총기를 난사해 12명이 죽고 40명을 다치게 했다[41]. 이 날은 영화 <다크나이트 라이즈>(The Dark Night Rises)의 개봉일이었는데 그는 배트맨의 열광적인 팬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정말로 만약 모든 영화 속의 폭력이 실제 폭력을 조장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총기 사고가 일어나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영화를 통하여 무분별하게 습득한 언어에 대한 연구와 콜로라도의 경우와 같이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총기난사사건을 통하여 영화가 사회 문화의 기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언어와 행동의 변화를 유발함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영화는 유행을 창조, 전파시키는 영향요소로도 작용한다. 정지혜(2003)는 영화가 대중 패션에도 다양한 영역에 각양 방법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지나간 시대의 패션을 현대인들의 기호에 맞게 재수정되는 레트로(Retro)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42].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에 의하여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현실도피욕구가 강렬해져 과거로의 복귀를 통한 향수와 안정감 등의 심리작용으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이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영화는 현대인들의 모든 일상생활(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관객들은 영화에 나타난 라이프 스타일(Life Style)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새롭게 재생

산 해냄으로 영화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전파한다고 말할 수 있다.

3.2 영화가 인간의 내면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

가치관은 인간의 내면적인 삶을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영길(2003)은 문화 현상(영화)을 통하여 나타나는 가치관을 분석, 연구하는 작업은 우리의 삶의 더욱 구체화시키는 작업이라고 했다[43]. 그는 현대 한국영화를 분석하여 단절→붕괴→새로운 가족상을 모색하는 가족관, 소시민의 모습과 권위적인이고 때로는 사회의 피해자의 모습으로써의 남성관, 피해자의 모습 속에서도 능동적인 여성을 등장시켜 새로운 여성상을 모색하는 여성관, 그리고 청소년관, 분단의식, 정치관과 역사관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영화 활용 교육을 통해 새로운 가치관을 모색하려고 하였다. 이는 영화가 문화 현상을 반영할 뿐 아니라 관객들의 머릿속에 새로운 가치관을 주입시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영화가 인간의 내면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사랑에 대한 인식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왜냐하면 인류가 남긴 문학작품의 대다수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며 사랑은 인류의 최대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려고 시도하였고 지금도 문학작품과 영화를 통하여 사랑을 그려내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사랑은 인간의 삶과 문화를 형성하는데 지대하게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trendmonitor.co.kr)가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남녀가 데이트할 때 평일과 주말을 통틀어 가장 자주 가는 장소 중 하나가 영화관으로 나타났다[44]. 앞서 언급했듯이 영화가 사상을 전달하기에 좋은 매개역할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영화에서 나타나는 사랑에 대한 정의와 행동양식을 모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Ingram(2016)은 영화를 통하여 배운 사랑의 부정적인 측면을 밝히면서 할리우드 공식의 단계를 (1) 딱 맞는 사람을 찾는다 (2) 사랑에 빠진다 (3) 충만한 미래의 삶을 위하여 당신의 꿈과 희망을 그 사람에게 맞게 수정한다 (4) 만약 실패한다면, 다시 1, 2, 3단계를 반복한다

로 요약하였다[24]. 그는 할리우드가 지난 40년 동안 영화와 쇼, 각종 소설을 통하여 사랑에 빠지는 법과 관계, 황홀한 성관계의 방법에 대하여 비판하며 이러한 할리우드 공식이 1960년 이후 이혼율을 두 배 이상으로 증가시켰고, 이러한 문제는 자녀들의 정서 장애와 불신, 그리고 이혼한 여성의 절반이상이 빈곤층 이하로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한다[24]. 이것은 모든 영화가 관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영화는 사람들의 내면적인 삶에 가치관과 생활양식 즉,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III. 영화와 현대 기독교의 적용

1. 영화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 방법

Niebuhr(2007)는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다양한 문화관을 「그리스도와 문화」(Christ and Culture)를 통하여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 문화와 역설적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 그리고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 등 다섯 개의 유형으로 분석하였다[9]. 또한 영화를 하나의 특정한 문화적인 표현이라 생각한 Johnston(2003)은 Niebuhr의 고전적 모형론을 영화라는 매체에 적용하여 영화에 대한 신학적인 반응을 회피(avoidance), 경계(caution), 대화(dialogue), 수용(appropriation), 신적인 만남(divine encounter)의 다섯 단계로 표현하였다[1]. 첫째로, 회피의 태도는 초기 보수적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이 취한 보이콧의 성향을 유지하는 것인데 이러한 태도는 그리스도만을 그리스도인이 좇을 유일한 권위자로 인정하고 문화의 권위는 단호히 거부하는 비타협적인 입장이다. Niebuhr는 이 태도의 유형은 “꼭 필요한 것이나, 동시에 부적절한 입장”이라 표현했다[9]. 왜냐하면 이를 대표하는 위대한 인물들의 일편단심의 자세와 성실성은 그 가치를 높이 살 만하지만 문화를 완전히 배제한 채 그리스도에게만 의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국원(2002)은 퀘이커(Quaker) 교도와 메노나이트(Mennonites), 아미쉬(Amish)의 예를 들어 “이

들의 소박한 이상은 결코 오래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증언이다”라며 이들의 고립과 배격의 위험성을 우려하였다[45]. 둘째로, 경계의 입장은 현대의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입장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회피와 마찬가지로 신학적인 입장에서 영화를 바라보기 때문에 영화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 세 번째는 대화의 태도인데 이것은 영화를 볼 때, 이것은 신학적으로 시작해서 미리 결정된 규범으로 영화를 판단하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영화를 영화 그 자체로 보아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어떤 형태든 간에, 영화와 신학이 온전한 대화의 파트너가 되도록 치우침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것은 또한 사람들이 영화 자체를 보는 비판적 전망을 가지고 영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신학과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네 번째, 수용의 태도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에게 환영받을 가능성이 높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 하나님은 기독교와 문화 모두 주인이라 여기기 때문에 영화와 신학 사이에 실제로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며, 먼저 신학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영화 자체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영화를 통하여 그들의 신학의 깊이와 넓이를 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1]. 그런데 이 입장의 문제는 외부 문화를 수용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어떤 특정 문화와 떨어질 수 없게 종합되어 버린다는 데 있다[45]. 마지막으로, 신적인 만남의 태도는 흔히 자유주의자 또는 문화적 개신교로 일컬어지는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와 같은 입장을 취한다. 이들은 삶에서 마주치는 경험과 사물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알려진다고 주장해온 가톨릭교회의 주장과 일치한다 [1]. 심지어 Greely(1988)는 영화에 대하여 “예술가로서 영화 연출가들이 때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창조 세계자체를 통해 계시하기로 선택하신 것보다 훨씬 더 뚜렷하고 결정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45]. 이 입장은 기독교와 문화의 통합을 수월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 세상에 적극적인 참여와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만 물질적인 풍요나 건강 등 문화의 가치와 기독교의 이상을 동일한 가치로 인식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한계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Niebuhr와 Johnston의 문화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Keller(2012)가 최근에 네 가지로 교회의 문화 참여 모델을 제시했는데 변혁주의자(Transformationist) 모델과 적절성(Relevance) 모델, 반문화주의자(Counterculturalist) 모델과 두 왕국(two Kingdoms) 모델이 그것이다[11]. 변혁주의자 모델은 일상의 삶과 공공의 영역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상대적으로 교회 밖의 행동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적절성 모델은 문화의 조류에 너무 낙관적이어서 교회와 문화가 서로간의 분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므로 교회와 사회전문기관의 차별성을 상실하게 된다. 반문화주의 모델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대항하는 교회 공동체로 나타난다는 개념으로, 교회는 적극적으로 반문화적이고 대안적 인간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두 왕국 모델은 하나님은 세상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별개의 방법으로 통치하시며 그리스도인들은 비신자들과 함께 일반 은총에 따라 공동시민으로 살

표 2. Niebuhr와 Johnston, Keller의 문화에 대한 이해 분석 비교

Niebuhr	Johnston	Keller	내용
Christ against Culture	회피	반문화주의자 모델	기독교와 문화 사이의 대립을 강조하여 문화가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봉쇄한다.
Christ of Culture	신적인 만남의 태도	적절성 모델	문화와 기독교 사이의 근본적인 일치성을 주장하는 유형으로 초월적 세계와 현세 간의 간극을 인정하지 않고 그 연속선상에서 문화의 성취를 통해 기독교를 설명한다.
Christ above Culture	수용		중세 가톨릭교회의 입장으로, 기독교가 문화 위에 있으면서 문화를 포용한다.
Christ and Culture in Paradox	경계	두 왕국 모델	기독교와 문화 사이에 연속성(일치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불연속성(철저한 분리)이 공존하는 유형으로 기독교와 문화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양자의 이질성을 강조하는 이원론자의 입장이다.
Christ, the Transformer of Culture	대화	변혁주의자 모델	기독교를 문화의 변혁자로 보는 입장으로 문화에 대한 태도가 더 적극적이고 희망적이라는 점에서 다른 유형과 비교된다.

아간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성경보다 일반 은총의 역할에 더 많은 무게를 두면서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의 계급을 만드는 경향이 있다[11].

앞서 언급한 Keller의 네 가지 모델은 모두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본질적인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각각의 모델들이 그 자체로 완전하지는 못하며 불균형적인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문화(영화)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모델과 분류는 인위적인 것이고 어떤 개인이나 집단도 이러한 분류 중 어느 하나에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떤 모델도 성경 주제들을 다 포용할 수도 없으므로 어느 특정한 모델만이 성경적이라거나 가장 최선이라고 고집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류를 통해 각 모델의 한계를 알고 극단을 피하며 균형을 잡아가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억할 것은 각각의 교회나 개인은 자신에게 더 맞는 문화 참여 모델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자가 가진 모델 안에서 어떻게 신실하고 공교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각 모델의 지지자들은 다른 모델의 핵심적 통찰들을 잘 분별하고 인정하며 흡수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변혁주의자 모델은 타락이 인간문화에 끼친 영향을 예리하게 보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방식으로 살아가게 한다. 적절성 모델은 공공선을 위한 희생적 봉사를 강조한다. 반문화주의자 모델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표지로서 대조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두 왕국 모델은 이 세상의 선함을 만끽하도록 도우며 직업의 숭고한 의미를 기억하도록 돕는다. 그러므로 “각각의 모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다른 모델들의 탁월함과 지혜로움을 발견”하여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축복들을 모두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11].

Johnston(2003)은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영화와 대화해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신학적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인간 문화 전체에서 나타난다. 둘째, 신학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임재와 사역을 다루어야 한다. 셋째, 하나님은 넓은 문화 속에서 역사하시며 삶의 모든 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넷째, 말뿐

만 아니라 이미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신학은 내러티브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들과의 상호작용에 열려있다. 여섯째, 건설적인 신학의 특징은 하나님의 이야기(성경, 기독교 전통, 특별한 예배 공동체)와 우리의 이야기(주변 문화의 삼의 경험)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진다[1].

2. 영화에 대한 현대 기독교적 적용

현대 교회의 선교적 역량을 더욱 약화시키는 것은 교회 안에 깊게 뿌리박힌 이원론인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교회를 따라다니면서 교회공동체와 세상과의 틈새를 더 벌어지게 해왔다[46]. 그러나 기독교적 영역은 단순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일하며 행동하고 사고하는 지역사회 공동체와 문화 속에 참여하여 효과적으로 소통하는데 까지 나갈 수 있어야 한다[47]. 지금까지 기독교가 종교적인 일에서는 전문가들이었는지 모르나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것은 이러한 노력의 부재 때문이었다. 밥 로버츠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영역을 경제, 농업, 교육, 과학기술, 커뮤니케이션, 예술, 정치/법, 가족, 그리고 교회 등 아홉 개로 분류해 제시하면서 교회가 단순히 교회의 선교적 측면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사회의 전 영역에서 합리적이고 열린 시각으로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46]. 따라서 현대 기독교가 현대 대중문화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영화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 인지를 살피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현대 기독교는 영화와 같은 현대 문화와의 바른 대화를 위하여 어떠한 이해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

2.1 영화에 대한 비평적 시각 확장

첫째로, 현대 기독교는 영화에 대한 올바른 비평적 시각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요즘 현대 사회는 과거와 달리 다양한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고 있다. 그래서 손 안에 있는 모바일(Mobile) 기기 하나로도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취득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너무나 방대한 지식과 정보 때문에 오히려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혼란을 초래할 때도 많다. 이와 같이 정보가 넘쳐나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사고하는

능력 즉, 비평적 사고(critical thinking)는 필수요소중 하나가 되었다.

그렇다면, 비평적 사고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비평적 사고는 어떤 주제나 쟁점이 되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종합하며 평가하는 능동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다[48]. 스스로 사고능력을 검토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갖춤으로 약점과 보완점을 인식하고, 사고체계를 개선시켜 정보를 평가함으로써 그릇된 생각 및 이념을 포착하고 배척하는 것이다. 특별히 영화의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영화를 자주 접하는 현대인들에게 영화에 대한 비평적 사고는 매우 필수적인 덕목이라 할 수 있다.

비평적 사고를 가진다는 것은 주변의 문화를 존중하고 공감하면서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가 적응하는 것을 의미한다[11]. 다양한 문화의 여러 측면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환경에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 그들의 희망, 두려움, 반대나 신념들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어떠한 문화가 성경적 진리와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그 문화에 직면하여 맞설 수도 있어야 한다. 이럴 때에는 지혜가 필요한데, 사람들이 이미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신념과 새롭게 설득해야 하는 신념과의 공통적인 부분을 찾아 피력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현대문화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문화나 인권의 문제, 문화적 희망의 상실의 문제 등은 기독교적 입장에서 문화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소재들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과정에서 문화를 단순히 책망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나눌 수 있는 공유가치를 찾아 성경적 세계관을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화를 접할 때, 어떠한 관점으로 영화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Johnston(2003)은 영화를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려면 영화를 보고 감상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자신의 비평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1]. 여기서는 그가 제안했던 비평의 방식을 토대로 영화에 대한 비평적 시각을 확장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영화의 이야기 전개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감독의 독특한 문제 풀이 과정을 읽어내고 그것을 기독교

교적인 문제 풀이과정과 비교/분석함으로써 비평적인 사고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대부분의 디즈니 영화는 주인공이 자신에게 직면해 있는 문제를 풀어나가 결국 해피엔딩에 이르는 과정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디즈니 영화를 통하여 고난과 역경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신학적인 입장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고난의 현실을 부정하고 피상적인 행복만을 주장하는 맹신주의(credulity)에 빠지거나 또는 다른 극단 고난의 현실만을 부각시키는 냉소주의(cynicism)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49]. 이러한 훈련과 노력은 두 양극단사이에서 중도(中道)의 신학으로 발전하여 보다 합리적인 해답을 찾아가도록 할 것이다.

둘째는 영화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의 사회적·개인적 역사를 반영하기 때문에 영화제작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은 대개가 영화감독임을 기억할 때, 감독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1]. 여러 작품들을 통하여 감독의 개인적 특성, 삶 자체에 대한 생각을 찾으려는 노력은 영화에 담긴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셋째로, 영화뿐 아니라 소설이나 희곡에서도 그 내용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찾는 것, 즉, 주제를 찾아내는 과정은 매우 기본적인면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감독이 영화의 내용을 통하여 관객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를 비평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영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비평적 시각을 확장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 시대에 있어서 영화는 더 이상 회피나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영화와의 열린 대화의 태도로 영화를 접해야 한다. 다시 말해, 영화를 접할 때 신학적으로 시작해서 영화를 자신의 마음대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 속에서 감독이 담아 놓은 생각과 감정을 읽어 내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 왜냐하면 영화에 대하여 비평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영화가 주는 메시지와 거리를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찾아 자신에게 마음에 드는 답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니라, 그 영화가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깨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대화를 통해 더 좋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화에 심겨져 있는 지식, 정

보, 생각, 감정이 무엇인지 온전히 느껴야 비로소 영화와 대화할 수 있게 된다. 영화를 먼저 영화 자체로 보고 영화 자체에 심겨져있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한다. 이러한 비평적인 사고의 확장의 태도가 영화에 대한 바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2.2 기독교적 영화 감상 글을 통한 사고의 정립

둘째로, 현대 기독교는 영화에 대한 올바른 비평적 시각의 확장을 위하여 글 쓰는 습관을 통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오늘날 영화만큼 광범위하고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매체도 없다.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소위 영상 세대라고 일컬을 만큼 영상 텍스트와 가깝게 지낸다. 영상 세대인 현대인에게 문자 텍스트보다 영상 텍스트가 교육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때가 많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오늘날 수많은 교육의 과정에서 영상 콘텐츠를 심분 활용하고 있다. 영상 매체의 활용은 대상의 집중도를 높이고 보다 흥미로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하지만 영상 매체를 지나치게 선호하고 중시하는 흐름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요즘 많은 대학생들은 문자 텍스트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보이는데 이는 상상력의 활동을 제한하여 사유의 깊이를 심화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50].

이러한 점에서 영화 감상문 쓰기는 영상 매체를 활용하면서도 문자 텍스트를 기반으로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도구가 된다. 사람들은 영화에서 비춰지는 특정한 장면이나 영화가 던지는 질문 또는 주제를 통해 특별한 의미를 발견하고 어떤 강력한 감정에서 사로잡힌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과 생각은 머릿속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휘발적인(volatile) 특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문자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된다. 이처럼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을 명시적 지식(explicit knowledge)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는 영화 감상 글쓰기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단순히 교회주일학교에서 청소년들이나 또는 일반 성도들을 대상으로 영화를 보여주고 글을 쓰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으로 가능할까? 물론, 이렇게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가 교회이기에 인식의 전환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매체는 메타포다 [7]. 그래서 같은 영화를 상영하더라도 극장에서 상영하는 것과 교회에서 상영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차이로 나타난다. 이는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가는 것과 교회에 가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 설교 없이도 미션스쿨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무런 계획이나 준비 없이 영화를 상영하고 기독교적 감상 글을 쓰면 되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적 영화 감상 글쓰기가 영화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선행되거나 진행되어야 할 것들이 영화의 정의(definition) 바로잡기와 그리스도인 삶의 적용을 통한 삶과 실천이다. 기독교적 영화 감상 글쓰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대로 알아야하며 아는 것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글쓰기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은 교사들이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으로 ‘좋은 영화는 무엇인가?’이다. 어떤 영화가 좋은 영화이며 나쁜 영화인지 정의를 내려야 목적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기독교 영화를 다룬다면 내용이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일지라도 그 내용이 정말 기독교적인지, 영화의 표현 방법(장면)이 관객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지 성찰해 보는 것이다. 그렇기에 영화를 보는 대상(청중)과 목적을 두고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지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정의를 내려야 한다.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나서야 비로소 프로그램을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질문은 청중들이 영화에 대하여 제대로 알기 위하여 던지는 질문으로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이다. 영화 전체의 주제 혹은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기독교적인 사상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적 영화 감상 글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영화 감상 글과 달

라야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무작정 회피나 경계의 입장에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과 영화에서 말하는 메시지와의 유사점, 차이점, 의문점, 교훈, 독특한 생각, 아이디어가 글 속에 들어가도록 쓰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독교적 영화 감상 글의 주된 목표가 기독교적으로 옳으나? 그르나?의 논박의 글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대답의 태도는 처음부터 의식을 경직시켜 사고의 폭을 좁게 만든다. 또한 초반부터 기력을 많이 소진시켜 탈진하게 된다. 글쓰기의 일차적인 목표는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하는데 있다. 그리고 이런 온전한 이해 속에서 영화가 주는 메시지와 기독교적 사상과 이념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올바른 비평적인 사고의 태도이며 한쪽으로 치우치는 생각을 방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영화에 대한 효과적 압과 실천을 위한 세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인으로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이다. 이것은 청중들에게 비평적인 사고를 통하여 정리된 생각이나 사상을 삶에서 실천하기 위한 질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생활과 연계되지 못하는 이론이나 지식은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 그렇기에 행동을 유발할 수 있도록 나의 다짐, 나의 목표, To Do리스트 등의 의지가 글 속에 드러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가능하다면 현재형으로 쓰도록 한다. 이는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록의 힘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는 Klausner(2004)의 글에서도 살펴 볼 수 있다. 그는 기록이 가지는 나비효과와 자기 암시 기능,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목표와 관계 수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고 있다[51].

지금까지 기독교적 영화 감상 글쓰기를 통하여 비평적인 시각으로 영화의 메시지와 기독교적 사상을 비교 및 분석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보다 효과적 적용을 위해서는 정리된 생각이나 사상을 단지 논리적인 지식으로 머릿속에 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생활과 연계하여 체험적 지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단계로까지 발전시켜야 한다.

2.3 소통하는 하브루타식 교육을 통한 사고의 확장

그런 의미에서 셋째로, 현대 기독교는 유대식의 하브

루타 교육방식의 접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기독교적 글쓰기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영화의 장면들로 인해 생겨난 부정적이거나 바르지 않은 생각들이 아무런 거름의 과정(filtering) 없이 언어나 행동으로 표출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기독교적 글쓰기는 기독교 윤리를 거울삼아 스스로 생각해보고 올바른 답변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은 논리적 생각과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지만 간혹 자기만의 세계의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글쓰기가 개인의 창의력이나 독창성을 높인데 유익할 수는 있으나 자기 오류에 빠져 잘못된 사고를 정립할 수 있음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 이는 타인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유대인의 교육 방식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유대인의 전통 교육인 하브루타(Chavruta)는 히브리어 '하버(Haver, חֲבֵר)' 즉 친구라는 말에서 유래됐는데, 처음에는 토론을 함께하는 짝 또는 공부하는 파트너를 일컫는 말에서 점차적으로 짝을 지어 질문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교육방법을 일컫는 말로 확대되었다. 이것은 최근 몇 년 사이 잠자는 교실을 깨워 질문 있는 교실로 변화시키는 해결책의 하나로 교육계에 널리 확산되고 있다. 우리 교육계에서 하브루타 교육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개인의 창의성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일방통행(一方通行)적으로 독창성 없는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고 서로 간에 지식을 나눔으로 온전한 자신의 지식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브루타를 통해 단순 암기나 받아쓰기가 아니라 이해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훌륭한 소통교육 방식인 하브루타를 현대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일방통행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영화에 기독교적 메시지를 두고 대화를 시도함으로써 가능하다. 기독교적 글쓰기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올바른 답변을 찾아가는 소극적인 방법이었다면, 이번에는 타인과의 소통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영화와 대화하는 것이다.

이 과정의 진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는 '짝'

과 ‘질문의 개념’이다[52]. 우선 짝은 2명(1대 1)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4명이 함께 토론을 하면 1명은 말을 하고 나머지 3명은 듣게 된다. 그러나 둘이서 대화를 할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 한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람이 온전히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청해야 하며 중간 중간 고갯짓으로 공감을 표현하거나 질문을 던지게 된다[52]. 요즘 같이 스마트폰의 발달로 혼자 놀기에 익숙해져 현대인들에게 하브루타의 ‘짝’은 경청, 공감대 형성 방법, 상대에 대한 배려까지 아우르는 좋은 도구가 되리라 확신한다.

두 번째는 ‘질문의 개념’이다. 하브루타는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지식과 사고가 성장한다. 그렇기에 좋은 질문을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다면 좋은 질문이란 무엇일까? 좋은 질문이란 수준이 높거나 고차원의 난해한 질문이 아니라 자신을 성장시켜줄 수 있는 질문을 의미한다.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이나 혼란스러운 부분을 명확하게(clear) 만들어주는 질문이 좋은 질문이다. 즉, 좋은 질문은 급(level)의 차이가 아니라 부끄러움을 이겨낸 정직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질문들이 결국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

이처럼 영화와 기독교의 대화는 ‘짝’과 ‘질문의 개념’의 올바른 인지 속에서 질문→대답→소통→나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질문과 대답의 과정에서는 궁금한 점에 대한 갈증 해소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성찰과 통찰도 이루어진다. 내 생각과 타인의 생각에 차이가 있음을 깨닫고 다름을 인정하는 계기가 만들어진다. 소통의 과정은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하여 근거와 증거를 제시하며 설명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다.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기 때문에 상대의 감정을 읽어낼 수 있어 공감능력, 대면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 보통 이 과정에서 영화와 기독교적 메시지에 대한 생각의 차이로 약간의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지만 서로 존중과 배려의 정신으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 나눔의 과정에서는 짝을 바꾸어 또 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고 자신의 생

각을 나눌 수 있다. 새로운 짝과 일정시간 대화를 주고 받은 후 자리를 이동하면서 새로운 짝과 이야기를 주고 받도록 한다[52]. 다른 사람과 짝을 해 봄으로써 서로의 생각을 나누다 보면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채울 수 있으며 그 사람의 새로운 점도 발견하게 된다.

지금까지 영화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의 하나로 하브루타 교육방식을 접목하여 영화와 기독교의 대화를 진행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존중과 배려를 배우면서 스스로 영화의 메시지와 기독교적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올바른 답변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기독교적 메시지 즉, 그리스도의 사랑, 거룩한 성품과 생애를 제대로 이해하기를 고대해본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가 참여자의 삶의 변화로 나타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영화와 기독교와 대화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교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사고가 굳어져 버리거나 생각의 폭이 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프로그램의 온전한 효과성을 위해서는 교사들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IV. 결론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영상을 해석하고 사용하는 능력은 최우선적 과제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구전 문화에서 기록 문화로, 그리고 인쇄 문화로 옮겨갈 때마다 인간들은 문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여왔다. 문자 텍스트가 주류를 이루던 시대에는 문자 해독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의식이 발달함과 동시에 부모들의 책 읽어주기가 시작되었다. 학교에 가기 전부터 책을 읽었고 학교에 가서는 국어교육을 받았다. 이러한 문화에 적응하려는 수많은 준비는 문자의 시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제 시대는 문자의 시대에서 영상의 시대로 옮겨가고 있다.

영상의 시대의 대표 매체로서 영화는 경제, 사회, 정치, 그리고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1994년의 <쥬라기 공원> 일화는 영화가 갖는 경제적인 영향력을

표현 효과적으로 나타내주었고, 과거 디즈니 영화 <알라딘>과 현대의 <겨울왕국>을 통해 영화의 사회적·정치적 영향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영화에 나오는 장면들이 언어와 행동을 유발하거나 모방하는 현상을 보면서 일상 모든 생활, 즉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도 확인했다. 이처럼 영화가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분야는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영화에 대한 기독교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 기독교인들이 가져야할 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영화에 대한 비평적 시각, 기독교적 영화 감상 글을 통한 사고의 정립, 하브루타식 교육을 접목한 사고의 확장을 제안하였다. 영화를 보는 눈과 생각, 올바른 기독교적 사상과 이념을 지닌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서론에서 밝힌 것처럼 일상의 문화와 기독교가 어떻게 접촉점을 찾아 바른 이해에 이르게 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했다. 신학이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목소리를 내고 이론으로 제시하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소리 없는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학은 사회와의 효과적인 소통과 이해를 위하여 보다 실천적이고 실험적일 필요가 있다. Scandrette(2011)이 지적한 것처럼, 변혁은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가능하며 새로운 형태의 사고와 행위를 온전히 확립하는 것에서 일어난다[53]. 또한 변혁은 대면집단(group encounter)과의 성찰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 기독교가 접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연대성을 높여야 할 이유이다. 실패와 그로 인한 좌절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변혁은 실수와 지속성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 기독교는 보다 적극적으로 공동체와의 교류를 위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패턴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가 기독교가 영화를 알아 가는데 또 다른 시도가 되고 오늘날 대중사회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문화에 대하여 기독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의 가능성을 찾아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더욱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1] 로버트 존스톤, *영화와 영성*, IVP, 2003.
- [2] 황지성, “소위 ‘도가니법’(장애인 성폭력 관련법)의 내용, 의의, 과제,” *여성이론*, 제26권, 2012.
- [3] 황상민, “영화 ‘도가니’ 현상의 사회심리학적 고찰,” *신동아*, 2011(11).
- [4] 계운경, “<도가니>의 참여적인 관객성을 위한 재현 전략,”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9호, pp.85-92, 2014.
- [5] 신동식, *세간의 사과*, 토라출판사, 2006.
- [6] 알렌 맥도날드, *영화, 보는 즐거움 읽는 기쁨*, 선한이웃, 1995.
- [7] 닐 포스터먼, *죽도록 즐기기*, 굿인포메이션, 2009.
- [8] 김선일, “선교적 교회의 패러다임에서 조망하는 교회학교 사역,” *복음과 선교*, 제17권, pp.9-38, 2012.
- [9] H. R. Niebuhr, *Christ and Culture*, Harper & Row, 1975
- [10] R. Johnston, *Reel Spirituality: Theology and Film in Dialogue*, Baker Academic, 2006.
- [11] T. Keller, *Center Church: Doing Balanced, Gospel-Centered Ministry in Your City*, Zondervan, 2012.
- [12] 정현정, *기독교 사랑에 기초한 유아교육프로그램 개발*, 공주대학교 교육정보대학원, 2010.
- [13] 신광철, “기독교문화콘텐츠 교육의 방향과 방법,” *종교문화연구*, 제20호, pp.217-242, 2013.
- [14] 민순의, “영화 <밀양>이 제기하는 인간학적 성찰 - 악의 현실과 구원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종교와 문화*, 제13권, pp.211-242, 2007.
- [15] 정원석, “영화 <블루프린트> 속에 투영된 인간복제 모티프의 특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1호, pp.123-133, 2011.
- [16] 김정호, 김재성, “한국 영화 4대 배급사의 흥행 10분위 기반 배급 형태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6호, pp.305-322, 2016.
- [17] 김지영, “한국 영화 포스터 사진 분석,” *한국콘텐츠*

- 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2호, pp.618-628, 2014.
- [18] 이혁진, 신애경, “영화 및 드라마 촬영지의 관광 이미지를 통한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한국사진지리학회, 제19권, 제4호, pp.119-129, 2009.
- [19] 배기형, “영화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제12권, 제9호, pp.172-181, 2012.
- [20] 김은영, “박스오피스: 영화 경제와 시장 지배의 논리,” 영화연구, 제30호, pp.59-79, 2006.
- [21] 이지원, “디즈니, 디즈니랜드의 오싹한 현실,” 창비어린이, 제4권, 제4호, pp.152-165, 2006.
- [22] 양철호, 정상완, “언론이나 영화가 대학생들의 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연구: 다큐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0권, 제6호, pp.157-176, 2014.
- [23] 김정선, 윤영민, “육설로 대화하는 한국 영화,” 한국언론학회, 제55권, 제5호, pp.81-104, 2011.
- [24] C. Ingram, *Love, Sex, and Lasting Relationships*, Baker Books, 2015.
- [25] 이원덕, “영화 및 드라마 촬영지 지역특화 사례 연구 및 발전방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8권, 제12호, pp.98-108, 2008.
- [26] 선우현, “문화산업 논리 구현체로서 디즈니 만화 영화: 문제점과 극복방안,” 사회와 철학, 제16호, 2008.
- [27] 오진호, “영상산업과 문화산업의 발전 방안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4호, pp.12-15, 2011.
- [28] 정성욱, *한국의 문화산업정책 10년*,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 [29] 함충범, “21세기 한국영화에 대한 변증적 고찰,” 한양대학교 대학원 시네마, 제2권, pp.171-199, 2006.
- [30] 안지혜, “문화로서의 영화: 프랑스 문화정책의 이념을 통해 본 영화정책,” 한국정책과학회회보, 제12권, 제4호, pp.389-413, 2008.
- [31] 정행득, 이상호, “중국 영화산업의 성장과 한국 영화산업의 발전방안,” 문화산업연구, 제16권, 제2호, pp.87-96, 2016.
- [32] 강병진, “인종차별당한 3살 호주 원주민 소녀에게 전해진 전 세계의 위로,”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5년 6월 24일.
- [33] B. Brecht and W. J. Brecht, *On Theatre: the Development of an Aesthetic*, edited and translated by John Willett, Methuen Drama, 1987.
- [34] 정병기, “정치적인 것의 영화적 재현과 표현, 그리고 재현과 표현의 정치학,” 사고와 표현, 제9권, 제1호, pp.263-291, 2016.
- [35] A. Bazin, *What is Cinem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7.
- [36] G. Deleuze, *Cinema 2. The Time-Image*, Univ Of Minnesota Press, 1989.
- [37] 김호영, *영화이미지학*, 문학동네, 2014.
- [38] 김호영, “들뢰즈의 영화기호론,” 기호학 연구, 제32집, pp.117-146, 2012.
- [39] R. Williams, *Keywords: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Fontanan, 1976.
- [40] 이승구, “영상의 선정성과 폭력에 관한 소고,” 영화교육연구, 제4권, pp.205-220, 2002.
- [41] “美 콜로라도, 또 총기난사 악몽 ... 총기규제 여론 부상,” *The Korea Herald*, 2015.11.30.
- [42] 정지혜, *한국영화 의상이 대중패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1998년 이후 Retro 현상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2003.
- [43] 이영길, *현대 한국영화에 나타난 가치관 연구: 1999년 이후 영화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 [44] 학회자료, “데이트에 관한 조사,”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 제2012권, 제11호, pp.1-47, 2012.
- [45] 신국원, *신국원의 문화이야기: 문화 전쟁 시대의 기독교 문화 전략*, IVP, 2002.
- [46] M. Frost, *Incarinate: The Body of Christ in an Age of Disengagement*, IVP, 2014.
- [47] M. White, “Abandon Point and Click Activism,” *Adbusters*, March 2009.
- [48] 박만엽, “비판적 사고와 논증 분석: ‘발표와 토론’

을 중심으로,” 한국사고와표현학회, 제4권, 제1호, pp.63-101, 2011.

[49] D. J. Hall, *God & Human suffering: An exercise in the Theology of the Cross*, Augsburg, 1986.

[50] 박선영, “시와 영화를 활용한 글쓰기 수업의 효용성 고찰,” 한국문학과 예술, 제18권, pp.147-189, 2016.

[51] 헨리에트 앤 클라우저, *종이 위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 한언, 2004.

[52] DR하브루타교육연구회, *하브루타 질문수업*, 경향비피, 2016.

[53] M. Scanderette, *Practicing the Way of Jesus*, IVP, 2011.

저자 소개

권혁진(Hyuk Jin Kwon)

준회원



- 2007년 2월 : 충주대학교 컴퓨터 공학과(공학석사)
- 2016년 3월 ~ 현재 : 삼육대학교 신학대학원(석사과정)

<관심분야> : 청소년, 문화, 교육 콘텐츠

봉원영(Won Young Bong)

종신회원



- 1998년 2월 : 삼육대학교 대학원 신학과(신학 석사)
- 2010년 5월 : 미국 Andrews University 신학과(목회학 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삼육대학교 신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청소년, 리더십, 교육 콘텐츠